
'18년 ADB/OECD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2018. 1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2018년 ADB/OECD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주최 : ADB/OECD 사무국 및 카자흐스탄 시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
- 참석자 :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원국(한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대표,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관계자(ADB, OECD, UNDP, TI 등), 우리대표단(권익위 및 조달청)

(제2차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 일시/장소 : '18. 11. 8(목)/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제1차 회의는 '17.11월 서울에서 개최

(조달 관련 아태지역 부패방지 워크숍)

- 일시/장소 : '18. 11. 6(화)~7(수)/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ADB/OECD 아태 반부패 협력사업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 개요 : 아태지역 국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고 부패 추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ADB와 OECD 공동으로 창설, 현재 31개국 참여
- 주요 활동
 - 조정그룹회의, 반부패 컨퍼런스, 반부패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및 주제별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 ※ “조달 분야 부패추방”(’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08), “뇌물죄”(’10)

□ 회의 주요 결과

- 공공청렴네트워크(Public Integrity Network, PIN) 회의는 2017년 제9차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컨퍼런스('17.11월, 서울)시 처음 개최된 세부 회의체로서, '공공조달분야 청렴'을 주제로 개최됨.
- 동 회의는 **ADB 주최 공공조달 부패방지 워크숍과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워크숍에는 15여개국 조달/부패방지 담당 공직자들이 참석하여 공공 조달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요소 시뮬레이션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실습 훈련이 진행됨.
- 공공조달 과정의 **전자화(e-government)** 및 정보 공개(**open government**)가 효율적인 부패방지 방안으로 언급되었으며, 전 조달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red flags**)를 인지하여 조치하는 것이 잠재적 부패를 방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
- 우리 대표단은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조달 정책을 소개함.
- 특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의 전면적 차단을 위해 도입한 **전자화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조달 담당자등에 대한 **청렴·윤리 교육**을 소개하며 부패 예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알림.
- 우리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부패방지청장 별도 면담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의 공익신고자 제도를 예시로 삼고 있음을 소개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가자고 언급함.

□ 관찰 및 평가

- 공공 조달 분야에서 우리의 나라장터 시스템이 대외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받은 국가 외에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정부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론적·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특히 태국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국가들이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함.
- 우리 나라장터 시스템이 전자화(e-government) 및 정보 공개(Open-government)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대부분 공감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이전 또는 외국정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카자흐스탄 부패방지청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을 부패방지 선진국으로 소개하며, 특히 한국의 케이스를 향후 카자흐스탄이 나아가야 할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부패방지 제도와 법에 대하여 큰 관심을 나타냄.
-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보·포상 범위와 가액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등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시 참고할 것임을 언급하며 향후 협력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함.
- 이와 같이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과 ADB, OECD등이 인정하는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관련 기술이전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제23차 ADB/OECD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가 내년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하여 ADB측은 OECD측의 해당 재정 상황 악화로 금년도에 조정그룹회의를 비롯한 LEN(법집행 네트워크회의), BI(비즈니스 청렴성회의) 등을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내년도 조정그룹회의, LEN, PIN, BI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청(KPK)를 비롯한 다수의 유치 희망국간 협의 중이며, 시기는 2019년 10월 이전에 개최 예정임.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자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2차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 개회

- 굴샤라 압디칼리코바(Gulshara Abdykalikova) 카자흐스탄 국무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알릭 쉬펙바예브(Alik Shpekabayev) 카자흐스탄 국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장, 알리칸 스마일로브(Alikhan Smailov) 카자흐스탄 재무부장관, 로레인 왕(Lorraine Wang) ADB 부패방지 및 청렴사무소 자문관이 환영인사를 하였음.
- 쉬펙바예브 카자흐스탄 국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장은 회의가 개최되는 아스타나가 수도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재무, 교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을 소개함.
- 특히 그 과정 중에 공공조달 영역을 청렴하고 부패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험과 국제사회의 사례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발전된 조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왕 자문관은 작년 서울에서 열렸던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서 제1차 공공청렴네트워크(PIN)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 이어 금년에 제2차 공공청렴네트워크(PIN) 회의가 연속적으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금번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의 주제인 ‘공공조달 부패 방지’를 통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함.

□ 세션1. 공공조달분야의 부패 척결 과제

- 니티야폰 임자이(Nitiyaporn Imjai) 태국 Comptroller General부 선임 재무분석관은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 △ 조달 관련 법과 규칙 재검토, △ 전자 조달시스템 운영, △ 인터넷상에 모든 정보 공개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 직접 대면하여 입찰하는 시스템에서 전자 입찰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인건비, 교통비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11.41%의 예산 절감 효과를 경험했다고 소개함.
- 태국은 특히 전자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컸다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하였으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함.
- 케니 폭(Kenny Fok) 홍콩 IACA 서기관은 정부의 공공조달 원칙과 규율, 시스템에 대하여 실제 입찰에 응하는 민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홍콩 IACA에서는 ‘Integrity and Corruption Prevention Guide on Managing Relationship with Public Servant(공직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청렴 및 부패방지 가이드)’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민간 분야와의 이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함.

□ 세션3.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 위험

- 레나 디에징(Lena Diesing) OECD 공공청렴과 조달부문 정책자문관은 정보공개를 보다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연대 구성,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 연대구성이란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수많은 단계, 수많은 측면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행동가들의 움직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총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언급하며, 이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공유하게 되는 것임을 소개함.
- 페데르 블롬버그(Peder Blomberg) UNDP 청렴 위험평가 전문가는 지난 15년간 해외 뇌물 사건의 2/3이 공공조달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OECD 보고서* 결과를 소개하며, 조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위험신호(red flags)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OECD Foreign Bribery Report, Dec. 2014

- 위험신호(Red flags)는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 비정상적 임직임이나 사기,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패턴이나 형태를 나타냄.
- 위험신호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해당 조달 과정에 필연적으로 사기나 부패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세션4. 공공조달분야 부패예방 기술

- 한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조달 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조달청 조석윤 주무관이 패널토론자로 참석, 관련 내용을 발표함.
- 전자화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요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부패 예방을 위해 조달 담당자들의 청렴·윤리 교육을 시행하며 완벽하게 부패에 대한 사전 차단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를 소개함.

- 전자 조달 시스템의 우수사례로서 나라장터가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으며, 기술 이전 및 협력을 통하여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소개함.
- 데이비드 자이아니(David Jaiani) 조지아 조달청 IT 팀장은 조달 진행과정에서의 과도한 투명성과 정보공개는 오히려 부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찰 정보에 대한 과한 노출은 입찰자 또는 기업간 담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과한 정보 노출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정보공개는 언제, 어느 수단을 통하여, 어떤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지를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행해야 하며, 극단적인 투명성 추구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다만, 모든 조달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이자벨 아담(Isabelle Adam) Government Transparency Institute 담당관은 공공조달 부패를 ‘감시 체계 없이 특정 입찰자와 계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감시체계는 국가적, 조직적, 조달과정,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4개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세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적 체계 : △ 법과 규율 프레임워크, △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역량, △ 운영 능력과 시장 기능성, △ 제어 구조와 청렴 매커니즘
- 조직적 체계 : △ 조달조직의 역할과 기능, △ 조달 종사자의

역량과 재량권, △ 의사결정, 책임성과 신뢰성, △ 이해충돌, △ 정치적 영향력

- 조달 과정 : △ 입찰 전 단계, △ 입찰 단계, △ 입찰 후 단계

- 발제자들은 조달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신호(Red Flags)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신호가 부패와 항상 직결되지는 않으나 잠재적 부패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 세션5. 부패없는 조달 시스템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

- 지오르지 롬타체(Giorgi Lomtadze) 조지아 IDFI 공공조달 팀장은 공공조달을 부패없이 운영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로 △ 감시인 역할(watchdog activity), △ 법안 제정 과정에 참여, △ 반부패에 대한 새로운 툴 제작, △ 공정한 처리(treatment)를 위한 분쟁 해결에 참여 등 4가지를 주요하게 언급함.

- 특히 앞서 언급한 ‘새로운 툴 제작’과 관련하여 조지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함.

〈TI 조지아가 개발한 입찰 모니터링 툴〉

- 개념 : 조지아 정부가 정부 조달사업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일반 대중이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툴
- 주요 내용
 - 입찰에 성공한 업체의 총체적 가치
 - 입찰자와 공급자가 제시한 숫자
 - 상위 3개 경쟁자 정보
 - 입찰자들의 활동 타임라인과 가치 등

- 람 자나키람(Ram Janakiram) 투명성 펀드 파트너십 담당관은 시민 사회(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가 공공 조달분야의 부패

척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디지털 톨과 어플 등을 활용한 조달 관련 기술 숙지, △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펀딩
- 또한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자 조달 플랫폼 활용 능력 확보, △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펀딩 매커니즘, △ 지역사회와 국제 시민사회 단체간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

※ ‘조달 모니터링’이란 공공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제3자의 관찰, 트래킹, 감독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증인(social witness) : 입찰 평가 위원회에 시민 대표 참여’, ‘거시적 모니터링’ : 정부 정책과 법제에 대한 영향력, ‘미시적 모니터링’ : 개별 공공조달의 부패 위험신호 감지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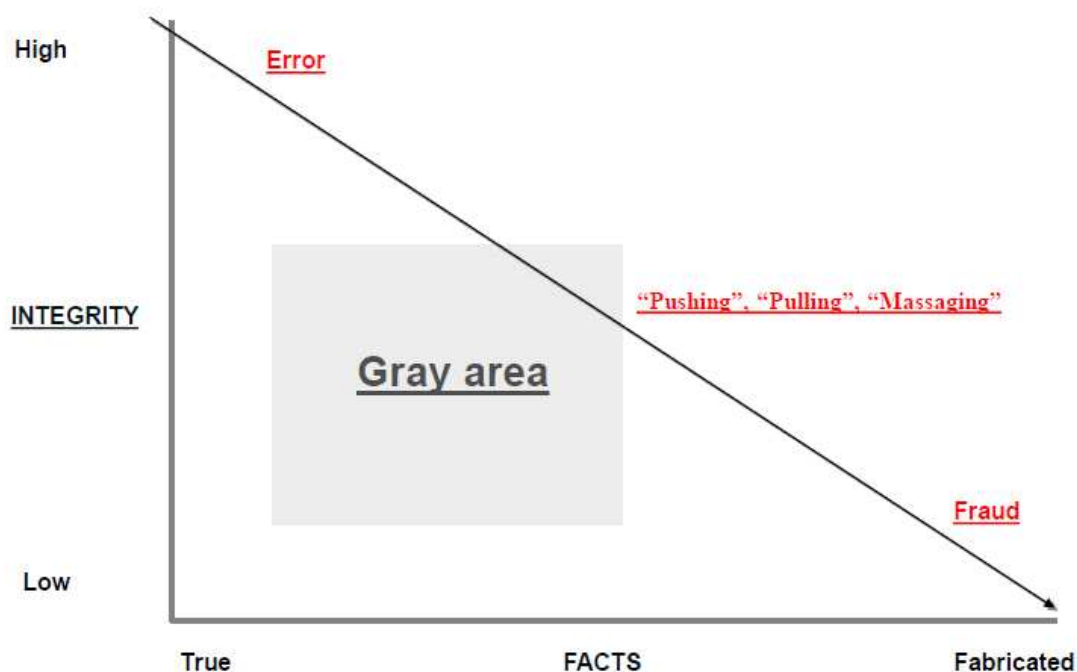
- 키티데지 찬탕쿨(Kittidej Chantangkul) 태국 반부패청 매니저는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가 반부패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등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느 분야라도 공공조달의 과정을 공개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또한 공개적인 공공 참여를 비롯한 효율적 예방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SOEs)을 청렴하게 운영하며 이해당사자들이 편견 없이 상호 신뢰 하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언함.
- 그러나 현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낮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한 등, 많은 극복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설명함.

[공공조달 부패방지 워크숍]

□ 주요 내용

- (운영방식) 참석자들은 6-8명씩 그룹을 지어 예시를 통한 실전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운영하는 방식
 - 공공조달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종료하는 단계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며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분담 과정에서 강사의 코칭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됨.
- 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화폐가치(value for money)이며, 이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공공조달상의 화폐가치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증명 가능한 가치로 환산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needs)과 원하는 것(wants)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화폐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품질, 알맞은 재화와 서비스, 알맞은 장소, 알맞은 시간, 알맞은 가격인지 분석해야 함.
- 공정한 공공조달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개 원칙을 지켜야 함.
 - △ 화폐가치(value for money)에 기반을 둘 것, △ 재화와 서비스는 경쟁을 통하여 획득할 것, △ 역할과 의무를 확실히 구분할 것, △ 철저하게 계획할 것
- 조달 계획과정에서 위임규정(ToR)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됨. 1) 목적 (what? why?), 2) 수여자 (who?), 3) 범위 (what? where?), 4) 특정 (where? what? when?), 5) 제약, 제제 (what?, how?), 6) 보고 (how?), 7) 시간계획 (when?), 8) 배경 (전 분야)

- 입찰은 프로젝트 입찰 계획 → 입찰자 모집 및 평가서 제출 요청 → 입찰자 비교 분석 → 입찰 요약보고서 작성 → 이사회에 입찰 보고 및 의사결정 → 입찰자 선정 통보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위험요소(Red Flags)는 조달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며, 특히 입찰 평가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신용보증서상의 오류, 정확하지 않은 재정보고서, 입찰 보안, 입찰 조작, 입찰 제안서 사실관계 오류, 이해충돌 등)
- 다만 입찰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류(error)와 사기(fraud)는 구분하여 평가해야하나, 경계가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됨. 오류는 의도하지 않은 기재 실수나 누락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회계정보 등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나, 사기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기와 오류 간에는 모호한 공간 (grey area)가 존재함.



- 공공조달이 청렴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과정은 △ 기준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처리과정과 연계된 모든 문서 검토, △ 기존에 조사된 바 있는 처리(transaction)와 유사한 형태의 모든 문서 검토, △ 잠재적 위험신호에 대한 벤치마크, △ 위험신호가 나타났거나 편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에 연계된 모든 인적사항 확인 등의 요소를 포함함.
- 동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는 인보이스, 구매내역서, 계약서, 합의서, 윤리강령, 시행과정기준(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관계자 기록 등을 들 수 있음.
- 입찰자에 대한 배경조사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고용된 직원과 업체의 주 고객에 대한 정보까지 포괄해야함.
- 정부 홈페이지, 법률 정보, 사기 정보(World-check, 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사이트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공공조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무관용의 법칙, 용어의 모호성 제거, 담당자 훈련, (신고) 핫라인 운영, 사기 대응계획 작성, 미스터리 쇼핑(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고객을 가장하여 서비스를 평가함), 제3자 평가 등의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 검토가 필요함.

[카자흐스탄 시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장 면담]

□ 면담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8.(목) 10:30-12:00, 아스타나 힐튼호텔 1층
- 참석자 : 알릭 쉬펙바예브(Alik Shpekbayev) 카자흐스탄 국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장 및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홍콩 등의 주요 참석자 10여명

□ 주요 내용

- 쉬펙바예브 청장은 금번 회의에 참석한 많은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이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와 면담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카자흐스탄이 독립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바꾸어 가면서 세계경제규모 50개국 안에 들어가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소개함.
-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큰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 부패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 △ 부패 예방, △ 법집행을 통한 처벌 등의 3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도를 마련함.
- 쉬펙바예브 청장은 홍콩, 싱가포르, 한국을 예로 들며 경제성장과 동시에 부패 척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개 국가의 예시를 따르고 싶다고 언급함.
- 특히 자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소개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의 규모가 미화 200-70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함. 자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의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많이 참고하고 있으며, 회수된 공익 자산 등에 일정 비율로 상응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 중이라고 소개함.

- * 카자흐스탄의 사법기관은 행정(Administrative), 국민(Civil), 범죄(Crime) 등 3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에서 부패방지 기능을 총괄함. 그러나 경찰청 산하에 80명 규모의 조사·수사관으로 구성된 부패 관련 범죄 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패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 기소,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짐.

11.6(화) 공공조달분야 부패방지 워크숍	
09:00~09:15	개회
09:15~09:35	워크숍 개요 소개
09:35~10:20	조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용어사용, 민간조달과 공공조달의 차이점 등 • OECD 등 파트너 국가들의 공공 조달 규모 비교
10:20~11:00	조달의 정의 • 일반적 원칙 • 공공조달 각 단계에 적용하는 VFM 원칙
11:00~11:30	휴식
11:30~12:15	조달 사이클 • 결과체인 • 위임사항(ToR) 구성하기
12:15~13:30	조달 서비스 분야 • 팀활동 - 조달 계획 단계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 구성하기
13:30~14:30	휴식
14:30~14:45	입찰 평가
14:45~15:30	팀활동 - 입찰 평가 브레인스토밍 • 입찰평가 주체, 기술적 입찰, 상업적 입찰 평가
15:30~15:45	협상의 기술
15:55~16:15	휴식
16:15~16:50	기만과 오류 • 팀활동 - 조달의 취약분야
16:50~18:00	Q&A

11.7(수) 공공조달분야 부패방지 워크숍	
09:00~09:10	전일 내용 복습
09:10~09:15	전문적 회의주의의 개념 소개
09:15~09:45	팀활동 - 전문적 회의주의
09:45~10:15	전문적 회의주의의 특징 • 뇌물과 윤리적 위반사항이 일어나는 방법 • 회계장부상에 비용이 기입되는 방법 • 위험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
10:15~10:45	팀활동 - 공공비용 지출에서의 위험신호
10:45~11:15	휴식
11:15~13:15	조달과정과 단계별 위험신호 • 위험신호 활용하기 • 팀활동 - 입찰 문서 만들기 • 팀활동 - 입찰 과정 (3단계 프로세스) • 입찰과정 위험신호 인지하기
13:15~14:15	휴식
14:15~15:15	위험신호 평가하기
15:15~16:30	팀활동 - 카르텔 감지, 유착, 입찰 조작
16:30~18:00	마무리 • Q&A • 피드백
18:00	폐회

11.8(목)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08:30~09:00	등록
09:00~09:10	개회사 • Mr. Alik Shpekbayev, 카자흐스탄 국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청장 등
09:10~09:20	축사 • Lorraine Wang, ADB 부패방지 및 청렴사무국 자문관
09:20~10:10	세션 1. 공공조달분야의 부패척결 과제 • 중재자 : Ms. Lena Diesing, OECD 조달국 공공청렴과 정책 분석관 • Ms. Constaintine Palicarsky, UNODC 범죄예방 및 범죄 정의 담당관 • Mr. Olzhas Bektenov, 카자흐스탄 국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처 부위원장 • 태국 반부패처
10:10~10:40	기념사진 촬영 및 휴식
10:40~11:30	세션 2. 공공조달 부패방지를 위한 효율적 도구(tool) • 중재자 : Liviana Zorzi UNDP 방콕지역사무소 프로그램 애널리스트 • Ms. Claire Martin, TI “Integrity Pact(청렴 조약)” 팀장 • Lorraine Wang, ADB 부패방지 및 청렴사무국 자문관 • Mr. Paul Maassen, OGP 국가 지원 팀장
11:30~12:20	세션 3.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 위험 • 중재자 : Cholpon Mambetova, ADB 부패방지 및 청렴사무국 청렴 전문가 • Ms. Lena Diesing, OECD 공공청렴과 조달부문 정책 자문관 • Mr. Peder Blomberg, UNDP 청렴 위험 평가 전문가 • Mr. Zhaidar Inkerbayev, 카자흐스탄 재무부 공공조달위원회 위원장 대리
12:20~13:20	휴식

11.8(목)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 (계속)	
13:30~14:10	세션 4. 공공조달분야 부패예방 기술 • 중재자 : Mr. Olzhas Bektenov, 카자흐스탄 국민서비스 및 부패방지처 부위원장 • Mr. Seokyeon Cho, 한국 조달청 주무관 ‘나라장터’ • Mr. David Jaiani, 조지아 조달청 IT 팀장 • Ms. Isabelle Adam, Government Transparency Institute
14:10~15:00	세션 5. 부패없는 조달 시스템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 • 중재자 : Claire Martin, TI 공공 신뢰성 팀장 • Mr. Ram Janakiram, PTF(Partnership for Transparency Fund) • Mr. Giorgi Lomtadze, 조지아 IDFI 공공조달 팀장 • Mr. Kittidej Chantangkul, 태국 반부패청 매니저
15:00~15:30	휴식
15:30~16:30	세션 6. 공공조달 부패예방을 위한 반부패 기관의 역할 • 중재자 : ADB, OECD, UNDP • 그룹토의
16:30~18:00	Q&A 및 Wrap-up

□ 사업 개요

- 명칭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 창설 : 1999년 9월
- 참가대상 : 아태지역 국가(31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 OECD, UNDP,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단체
- 주관 : ADB/OECD 사무국
- 사업 목적
 -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아태지역의 부패 추방 노력 지원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및 추진 독려
- 주요 활동
 - 조정그룹회의, 반부패 컨퍼런스, 역량개발 세미나,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및 주제별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 주요 활동

-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아태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 전체회의 및 주제별 워크숍(3년 주기)
 - ※ '00.12월 서울에서 제2차 아태지역회의 개최
 -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Meeting of the Law Enforcement Network)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국가별 평가(Country review) : 반부패 시스템 및 반부패 정책 이행현황 평가(희망 국가 대상 실시)
 - ※ '16년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대상 실시

○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 부패 관련 정책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
- *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뇌물죄”(2010), “기업윤리”(2014), “국제협력”(2017 발간예정)

○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매년, 지역회의 개최 시에는 생략)

□ 회원국 및 자문기구

○ 회원국(Steering group members, 31개)

-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아일랜드, 티모르-레스테,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즈,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 자문기구(Advisory group)

- 미국변호사협회(ABA),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기구(APG), 호주 국제 개발기구(AusAID),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국제투명성 기구(TI),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국제협력공사(GIZ),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GOVNET)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

-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태지역 최초의 반부패 규범으로서 '01.11월 제3차 지역회의(일본 동경)에서 채택
-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기업·시민)별 행동계획으로 구성

행동계획 3개 부문(Three Pillars) 주요 내용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행정서비스의 청렴도, 책임성 및 투명성 증대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
 - 효과적인 예방·조사·기소, 기업의 책임성 제고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 교육·홍보 강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촉진

□ 회의 연혁

- '99.9.29 ~ 10.1 : 제1차 컨퍼런스(필리핀 마닐라)
- '00.12.11 ~ 13 : 제2차 컨퍼런스(서울)
 - ※ 아·태지역 반부패 행동계획 제정 합의
- '01.5.23 ~ 25 : 행동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필리핀 마닐라)
- '01.10.30 ~ 31 : 행동계획 최종안 작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회의(필리핀 마닐라)
- '01.11.28 ~ 30 : 제3차 컨퍼런스(일본 동경)
 - ※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조정그룹회의 결성
- '01.11.30 : 1차 조정그룹회의(일본 동경)
- '02.5.27 ~ 28 : 2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 '03.3.4 ~ 6 : 3차 조정그룹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03.12.1 ~ 5 : 4차 조정그룹회의, 4차 컨퍼런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04.7.5 ~ 9 : 5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필리핀 마닐라)
- '05.4.19 ~ 21 : 6차 조정그룹회의(베트남 하노이)
- '05.9.26 ~ 30 : 7차 조정그룹회의, 5차 컨퍼런스(중국 북경)
- '06.5.17 ~ 19 : 8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 '06.11.27 ~ 29 : 9차 조정그룹회의(태국 방콕)
- '07.9.3 ~ 7 : 10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인도네시아 발리)
- '08.5.27 ~ 28 : 11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 '08.11.24 ~ 28 : 12차 조정그룹회의, 6차 컨퍼런스(싱가포르)
- '09.3.23 ~ 26 : 13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마카오)
- '09.9.8 ~ 10 : 14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필리핀 마닐라)
- '10.9.14 ~ 17 : 15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11.9.27 ~ 29 : 16차 조정그룹회의, 7차 컨퍼런스(인도 뉴델리)
- '12.10.22 ~ 24 : 17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베트남 하노이)
- '13.7.23 ~ 25 : 18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동티모르 딜리)
- '14.9.2 ~ 5 : 19차 조정그룹회의 및 8차 컨퍼런스(캄보디아 프놈펜)
- '15.11.18 ~ 20 : 20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 1차 범집행 네트워크 회의(몽골 울란바토르)
- '16.11.8 ~ 10 : 21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 2차 범집행 네트워크 회의(부탄 팀푸)
- '17.11.15 ~ 17 : 22차 조정그룹회의, 9차 컨퍼런스, 3차 범집행 네트워크 회의
및 1차 공공청렴네트워크회의(서울)